

# ‘돈 벌이’로 전략한 언론 운영 제휴 매체 판매부터 이중 광고 영업까지



포털 제휴 매체에 대한 매매행위가 성행하는 가운데, 제휴 해지된 매체들이 새로운 매체로 인력을 이동해 버젓이 활동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본보를 통해 알려진 기업 홍보담당자들의 말에 따르면, 포털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매체들이 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 매체명을 바꾸고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포털 제휴매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0년 말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재평가를 통해 제휴가 해지된 웹데일리의 경우 기업 홍보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웹데일리가 자회사 더파워미디어와의 합병으로 인해 법인명과 매체명이 변경된다’고 알렸다.

해당 문서에는 향후 웹데일리의 모든 공문은 더파워미디어 이름으로 보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더파워미디어가 운영하는 더파워뉴스는 포털과 검색제휴된 상태다.

같은 시기 제평위 재평가를 통해 퇴출된 또 다른 매체 데일리그리드 역시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데일리그리드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치앤씨텔레그래프는 포털 검색제휴 탈락 시점에 포털 검색제휴 매체인 ‘아시아에이’라는 신문사를 인수했다.

이후 아시아에이측은 기업 홍보실에 “저희 (주)에이치앤씨텔레그래프가 ‘아시아에이’ 신문사를 인수·합병하여 기존 데일리그리드 기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아시아에이에서 활동하게 되었다”며 “제호만 변경되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아시아에이와 데일리그리드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취업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에이치앤씨텔레그래프 채용 정보에는 ‘포털에 제휴를 맺은 4개 매체(데일리그리드, 뉴스브라이트, 투어타임즈, 더기어)를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그룹’이라고 자신들의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데일리그리드와 더기어는 포털 검색제휴에서 해지된 상태다.

2020년 초 포털에서 제휴 해지된 비즈트리뷴의 경우도 현재 네이버와 제휴되어 있는 S-저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비즈트리뷴과 S-저널의 사무실, 그리고 발행인은 동일하다. 심지어 동일 기자가 양쪽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제평위 퇴출위원장을 역임한 서원대 김병희 교수는 “매체 간 합병을 통해 탈락한 매체가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 것은 해당 매체가 어뷰징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제평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때마침 제평위 쪽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심사 규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1년 2월 발표된 심사 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초 제휴 계약 당시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

웹사이트	www.dailygrid.net
연혁	2018년 언론사 더기어 인수 2018년 언론사 투어타임즈 인수 2017년 언론사 뉴스브라이트 인수 2005년 (주)에이치앤씨텔레그래프 설립
소개	포털에 제휴를 맺은 4개업체(데일리그리드, 뉴스브라이트, 투어타임즈, 더기어)를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그룹입니다.

jobplanet에 올라온 에이치앤씨텔레그래프  
2021년 하반기 채용 정보 갈무리

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제휴 내용 또는 매체의 성격에 변경(제호·상호·법인명·도메인 변경·매체양도 등)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체에 대해 재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다.

### 동일 대표가 등록된 매체만 24곳, 제휴된 매체는 수억에 판매

최근에는 포털과 제휴를 맺은 언론이 프리미엄 가격까지 없어 수억 원에 거래되는 시장까지 형성됐다.

항간에는 제휴 매체 판매만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3~4개의 매체를 만든 후 포털제휴를 신청, 이중 신청된 매체를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포털 검색 제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매체들이 제휴심사에 통과하고, 통과 직후 언론사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가격은 3~5억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제휴 통과를 위한 족집게 과외까지 생기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KBS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모 언론사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11곳의 검색제휴사를 운영했으며, 24개의 인터넷신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했다. 당시 네 개의 검색 제휴사를

## [취재후/탐사K]② 언론사로 재테크? 5억 원에 거래되는 포털 검색제휴사

입력 2021.07.04 (09:00) | 수정 2021.07.04 (20:30)

취재후·사건후

3 3 <

가



KBS뉴스에 보도된 제휴 매체 매매 행위, KBS뉴스 홈페이지 갈무리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KBS뉴스 측은 모 대표가 전액 현금을 받고 검색 제휴 언론사의 지분을 100% 넘긴 사실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 한사람이 여러 매체 운영하며 기업에게 이중 광고 영업하기도

여러 매체를 운영하는 곳 중 일부가 이중으로 기업에게 광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B2B 기업 홍보 담당자 A씨는 “기자도 같고 사무실도 같고 대표도 같은데 매체명만 다르게 해놓고 기업을 대상으로 이중으로 광고 영업을 하는 곳이 꽤 있다”며 “한 매체의 국장이 다른 매체 대표로 활동하는가 하면, 모 언론사 대표는 자기 아내와 함께 여러 개의 매체를 만들어 놓고는 기삿거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등록이 신고제이고, 여러 매체 등록 자체가 법적으로나 규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만, 이렇게 언론사를 운영하는 것은 사주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비춰질 뿐 정상적인 언론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광고주협회 광혁 사무총장은 “언론사 본연의 역할을 무시한 채 인터넷언론 운영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일부 비윤리적 매체들로 인해 기업과 정론의 길을 걷는 많은 언론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업 쪽에서도 포털로 장사하는 언론에 끌려만 다닐 것이 아니라 매체 가치 등을 재평가하고 이에 맞게 광고 및 협찬을 집행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재형 yoojh1999@kaa.or.kr